

이케노하라 원지

이케노하라 고유의 풍경은 모두 행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의 운젠에는 많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방목되던 양들은 다양한 식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진달래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화산 기반 산성 토양인 이 땅에서 꽃을 피우는 이 관목은 지역 일대에 퍼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케노하라의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 군락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양을 방목하지는 않지만, 현지인들에 의한 잔디깎기 등의 보호활동으로 그 풍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의 꽃인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는 운젠 지역에 군생하고 있는 진달래과로, 5월부터 6월 초에 걸쳐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꽃을 피워 산비탈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방문합니다.

부지 내를 통과하는 돌계단 산책로는 비교적 평탄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산책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야타케(971m), 모켄다케(1,333m), 헤이세이신잔(1,483m)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